

세속과 피안 연결 사바중생 인도

월 2회 연재

상징으로 보는 불교문화

다리

어버린다는 상징성이 내포돼 있다. 이처럼 불국토를 향하는 수행의 과정을 상징하고 있는 다리는 징검다리에서부터 무지개 같이 생긴 홍교 등이 있다. 험난한 수행의 과정을 계단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중생의 욕심이 끊어지기 전, 성불에 대한 번뇌소멸의 과정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다리를 건너가는 사람은 한번쯤 멈춰 서서 밑을 내려다 보기 마련이다. 흘러가는 물을 보며 '고정된 것은 없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반추하기도 하고 또 물이 맑으면 자기를 비추어 보며 자신을 점검하기도 한다.

부처님께서는 마음밭에 선형을 심으면 북이 종성하게 열린다 8복전을 설하셨다. 이 8복전중 하나가 험한 길을 잘 다져서 사람들이 편하게 오고갈 수 있게

나 당신에게 바치리라
-〈협한세상의 다리가 되어〉 노래중-
이 험하고 각박한 세상, 희망과 행복으로 향하는 다리를 놓아 보자. 아니, 스스로 다리가 되어 보자.

■ 불국사 연화교 · 칠보교

통일신라시대의 석교로 국보 제22호이다. 극락전 이미타여래의 불국토세계로 통하는 안양문에 연결하는 다리로서 지하문으로 오르는 청운교와 백운교와 모습이 비슷하지만 경사가 훨씬 완만하게 처리되어 있다. 아래 있는 것이 연화교이다. 돌계단위에 연꽃잎을 새기고 중앙에 바둑판 모양의 무늬를 열개나 이어놓은 점이 특색있다. 이 다리에는 글이 삐죽하고 열로 길게 퍼진 꽃잎이 계단마다 새겨



○ 불국사 청운(아래) · 백운교(위)를 오르면 불국토의 입구인 지하문에 다다른다.

불국토 향한 수행과정 상징

선암사 승선교 신선이 오르듯 아름다운 아치형

불국사 백·청운교 45도 경사... 석교 · 홍예의 시원

하는 것이다. 예전에는 사찰에서 다리를 놓아 마을 사람들의 불편을 덜어주곤 해 스님들 가운데 뛰어난 가교기술자가 많았다.

당신이 외기 소침해 있을 때나 당신의 눈동자에 눈물이 고일 때 내가 눈물을 닦아주고 내가 당신곁에 있어주리라.

그날이 돌아쳐 친구도 찾을 수 없을 때 거센 파도위의 다리와 같이

져 있다. 연화교가 끝나는 맨 윗단에는 훨씬 큰 연꽃이 뚜렷하게 조각되어 있다. 다리밑에는 약간의 완만한 곡선을 이룬 홍예가 만들어져 가구(架構)의 세부를 보면 청운교 백운교와는 달리 대조를 이루고 있다. 위쪽의 다리가 칠보교로서 여기에는 연꽃이 조각되어 있지 않다. 계단의 양쪽 난간에는 네개의 정교하게 다듬은 돌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 사이를 중간 돌난간으로 연결했다.

■ 불국사 청운교 · 백운교

통일신라시대의 석교로 국보 제23호이다. 불국사의 대웅전앞 지하문으로 오르는 다리로 현존하는 신라의 다리로는 유일하게 완전한 형태로 남아있다. 두개의 돌다리가 45도의 경사로 높다랗게 걸려 있는데 계단을 다리형식으로 만든 특이한 구조를 하고 있다. 화강암의 장대석으로 계단을 깔고 양쪽난간에는 인룡형의 돌을 이었으며 계단위에 설치된 세굴의 등연석(登緣石)은 각각 너비 70cm, 길이 6.2m나 되는 거대한 한개의 돌을 다듬어 놓았다. 장방형의 돌기둥위에 받쳐진 홍예는 반원을 이루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U자를 뒤집어 놓은 모양으로서 우리나라 석교나 성문의 홍예의 시원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 다리는 750년경 불국사 중창 때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며 입진왜란 때 불국사가 불타버린 뒤 1686년 1715년 두차례에 걸쳐 중수되고 1973년



○ 신사로 가는 길에는 늘 다리가 놓여있다. 사바세계와 불국토와의 기교를 상징한다. (사진=안정현)

불국사 복원공사 때 없어졌던 난간을 맞추어 옛모습을 복원하였다.

■ 선암사 승선교

선암사 입구에 있는 조선후기의 석조 홍교. 길이 14m, 높이 7m, 너비 3.5m로 보물 제400호. 길다란 화강암으로 다듬은 장대석(長臺石)을 연결하여 반원형의 홍예

를 쌓았는데 결국유씨가 정교하여 홍예 밑에서 올라다보면 부드럽게 조각된 동근천장과 같은 느낌을 준다. 홍예를 중심으로 좌우의 계곡 기슭까지의 사이에는 동글동글한 한 냇물을 사용하여 석벽을 쌓아 막았다. 다리 좌우의 측면 석축도 난석 쌓기로 자연미를 그대로 살렸으며 원형을 잘 지니고 있다.

■ 홍국사 홍교

조선시대의 무지개형 다리. 길이 40m, 너비 3.45m, 높이 5.5m. 홍예지름 11.3m로 보물 제563호이다. 부채꼴 모양의 화강석 86개를 맞추어 붙여올린 홍예는 완전한 반원을 이루고 있다. 단아하고 시원스러운 홍예의 양옆에는 학이 날개를 펼친듯 동글동글한 장식으로 쌓아올린 벽이 길게 펼쳐 조화를 이룬다. 측면의 석벽은 이른바 난석(亂積)쌓기로 무질서하면서도 정제된 석축을 보여준다. 골부분은 완만하게 경사를 이루어 곡선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미를 보여준다. 장식위에는 시냇물 네가들

가로 지르고 그 위에 다시 새로운 돌기둥을 올린다음 맨 위쪽에 흙을 덮어 자연스럽게 노면을 만들었다.

■ 송광사 삼청교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59호이며 일명 능허교(凌虛橋)라고도 불린다. 이 홍교는 다리 구실도 하고 우화각(羽化閣)이라는

건물을 세워 사람의 통행을 돕는 이중구조도 나타내고 있다. <송광사상공중창록>에 의하면 이 홍교는 1700년에서 1711년 사이에 조영된 것으로 60여년이 지난 1774년(영조 50)에 중수하였다. 다리 밑으로 흐르는 계곡을 이용하여 19개의 4각 장대석을 각지에 맞춰 홍예형을 이루고 양쪽 측면으로는 막돌이 아닌 4각 판석을 쌓아올렸다. 또 난간 받침돌과 돌출된 중심돌 위에 4개의 긴돌을 연결하여 난간을 이루었고 홍예천장에는 여의주를 물고 있는 용머리들이 나와 있다.

■ 태안사 능파교

조선시대의 다리. 능파각이라고도 불린다.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82호이다. 정면 1칸 측면 3칸의 맞배처마집이다. <태안사사적기>에 의하면 173년(영조 13)에 건립하고 1776년과 1809년, 1923년 4회에 걸쳐 중수했다. 이것은 일종의 다리역할을 겸한 건물로서 계곡의 양측에 자연암반을 이용하여 약간의 석축을 쌓고 그 위에 두개의 큰 통나무로 다리를 만들어 건물을 세웠다.

통나무 위로는 1단의 각진 침목(沈木)을 두고 기둥을 올렸는데 기둥은 민홍림이다. 공포는 주심포식으로 내외 1슬박이며 특히 행공침차(行工檢差)의 간략한 결구를 볼 수 있다. 항방 위에는 경방을 생각하고 항방과 외목도리. 그리고 화반 사이에 여러형태의 등불상을 조각하여 흥미있는 의장을 나타냈다.

김종근 기자



○ 선암사 승선교 홍교의 대표적인 다리.

다 리는 이 쪽과 저 쪽을 잇는 역할을 한다. 속계와 법계, 피안(彼岸)과 차안(此岸). 가시적 세계와 비가시적 세계 등 각기 상반되는 개념의 연결과 경계를 상징한다. 다리는 또한 새로운 세계와의 연결과 신천지의 입구로서의 상징성도 지니고 있다.

산사로 가는 길에는 반드시 다리가 있다. 사바세계에 사는 중생이 세속의 번뇌를 다리 아래에 흐르는 계곡물에 씻고 다리 건너 피안의 세계, 도솔천으로 향하는 것이다.

사바세계와 불국토를 잇기 때문에 사찰앞에 있는 다리를 피안교(彼岸橋)라고도 부른다. 피로움의 이 언덕(此岸)에서 열반의 저 언덕(彼岸)에 다다르기 위한 가교다. 피안교는 세속의 모든 번뇌를 끊



○ 대구 동화사 해탈교

몸을 다스리는(治身) 자·연·건·강·식·품

몸이 없으면 사람 아닌 귀신(精)이고 몸이 있으면 사람이다. 사람의 몸은 부모로부터 받아 태어났으므로 사람의 근본이 부모가 된다. 그러므로 보(孝)가 백행(百行)의 근본, 천하의 대본(大本)이 되며 또 그 다음이 충성, 화리, 신의가 된다. 몸이 음식을 먹고 소화와 배설을 잘하는 것이 바로 몸을 잘 다스리는 것(治身)이다. 몸을 잘 다스리면 피로도 없고 병도 없으니 신진대사가 원활하여 몸이 건강해진다. 몸을 다스리는 지신(治身)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治世)과 똑같다. 몸이 있어야 수신(修身)을 할 수 있고, 몸을 잘 다스리면 도(道)를 깨달은 분이 성인(聖人)이나 성인이라야 재가(在家居士)를 다스릴 수 있다. 지극(極)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 평천하(平天下) 세계를 평화롭게 할 수 있다.

성인이 되어야 오복(五福) [첫째 수(壽)건강과 장수, 둘째 부(富)부와 귀, 셋째 강녕(康寧)안락함, 넷째 유호덕(攸好德)덕을 좋아함], 다섯째 고종명(考終命)잘 죽음]을 다 이룬다. 사람은 잘 살고 죽어야 하기 때문에 오복의 첫째가 건강하게 오래 잘 사는 수(壽)가 되고 마지막이 편안하게 잘 죽는 고종명(考終命)이 된다. 그러므로 사람은 몸을 잘 다스린(治身)하여 몸을 잘 닦아도(道)를 깨닫지 않으면 안된다. 세상 사람이 모두 좋아하는 권력, 재산, 명예, 무병장수를 얻으려면 길이는 좋은 자연건강종합식품을 먹고 몸을 잘 다스려 몸을 잘 닦아서 도를 깨달아야 한다.

「불로화정(不老化精) ·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 · 솔선식(松仙食)」 등 「지신(治身) 자연건강종합식품」은 삼산산(三神山) 중 방장산(方丈山)인 지리산에 있는 본사 식품 제조공장에서 만든 것이다.

불로화정(不老化精)

신중 시찰의 스님을 위한 건강식품인 「불로화정」은 시연스님이 40여년전 은사 큰 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비법으로 흑염자(검은 깨) 외 감식초 외 10여종의 첨가물 [전부 우리 농산물]을 3년간 발효시켜 만든 것이다.

「불로화정」은 노소(老少), 체질에 상관없이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여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건강이 호전되어 노화가 억제되며 위염 · 소화불량 · 설사 등 위장질환이 치료되며 2개월만 복용해도 다이어트 없이 배불리 먹어도 비만이 안되고 복부의 주름살이 파지며 다량의 음주에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고 피로를 모르는 건강을 만들어 준다.

불로화정
정가 50만원(2개월분)을 마지막분
선착순 1,700명에게 40만원(2개월분)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가 격
· 구입문의 : 053)628-9145, 655-2227 / 011)808-8880
· 입금구좌 : 대구은행 161-07-412768-001 예금주 : 대구여래원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 솔선식(松仙食)

장생불사하면서 산에 사는 사람인 신선(仙人)의 주석(主食)은 사계절에 푸른 소나무이니 소나무의 놀라운 효능은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으랴 나무는 자기 몸을 불태워 없애고서 불을 생(生)하기(五行相生의 水生火)때문에 어머니의 거룩한 시령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나무중의 나무인 소나무는 동방(東方五行의 三木)의 나라인 한국을 대표하고 상징한다.

사람 및 인간의 비전(秘傳)된 많은 처방을 아는 여래지신(治身) 자연건강종합식품회사를 경영하는 시연스님과 지리산에서 30여년간 소나무만을 연구한 토종지 소나무임업장주(林業地主)가 힘을 합쳐 만든 소나무자연건강정(強精)종합식품이 「솔효소정액」과 「솔선식」이다.

「솔효소정액」은 솔잎 · 솔순 · 솔씨방 · 솔매디 · 송화가루 · 송진 · 송근백피 · 송로피 · 송이버섯 · 백복령 · 적복령 · 백복신 등 지리산의 정기(精氣)영아러인 우리 소나무의 열두 가지 원료에 당귀 · 감초 · 표고버섯 · 홍삼탕 기타 여러가지 첨가식품을 배합하고 밀봉하여 발효 숙성시켜 수천 종류의 식물성효소와 미생물효소 뿐만 아니라 비타민 · 미네랄 기타 고단위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으므로 원활한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자연치유능력을 길러줌으로써 성인병, 난치병을 치료하고 예방도 하여 정(精) · 기(氣) · 신(神)을 왕성하게 하는 놀라운 솔강정종합식품이다.

「솔선식」은 곡식종류는 흰 쌀도 들어있지 않고 「솔효소정액」과 똑같은 솔의 열두 가지 원료에 여러 영양물질을 배합하여 만든 것인데, 속세의 사람이 먹는 하루 세계 음식 대신에 선인이 먹는 일경이므로 흰 선식(仙食)으로 다른 음식을 하나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으며 3개월 정도만 먹어도 비만체중 20kg 이상이 빠지는 다이어트식품이고 성인병과 난치병의 예방 및 치료와 특히 당뇨병에 효력이 있으며 몸이 날아갈듯 가벼워지고 후유증도 없는 기적의 솔음식이다.

「동의보감」과 「본초강목」에서 솔은 심장, 췌장질환, 신경통, 관절염, 간염, 기관지질환 등에 효과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솔효소정액」과 「솔선식」은 한국식품연구소의 품질검사에서 적정관정을 받았으며 특허출원 【「솔효소정액」 96.57796호, 「솔선식」 96.5587호】였으며 건강보조식품 허가 [98331]를 받았으며 앞으로 우리 소나무 자연건강정종합식품을 세계 각국에 수출하여 많은 외화를 획득할 예정이다.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
환약 1개월분 : 정가 700,000원
* 회원등록시 할인가격 500,000원
특허출원 96-5587

솔선식(松仙食)
원액 2800ml(700ml 4병, 2개월분) : 정가 700,000원
* 회원등록시 할인가격 500,000원
특허출원 96-57796